

보도자료



보도 희망 일시	즉시		
배포일	2023. 3. 10.(금)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880-9072, 5054)
담당기관	중앙도서관	문의	고문헌기획연구(880-8071)

신입생 비상전(飛上展)

우리가 사랑한 시와 소설, 서울대인의 문학

Poems and Novels We Love, The Literature of SNU

- ◆ 전시기간 : 2023년 3월 14일 (화) ~ 2023년 5월 19일 (금)
- ◆ 전시장소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관 관정마루
- ◆ 개막식 : 2023년 3월 14일 (화) 오후 3시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장덕진)은 2023년 신입생의 대학 생활을 응원하고 도서관 소장 자료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신입생 비상전(飛上展) ‘우리가 사랑한 시와 소설, 서울대인의 문학’을 개최한다. 개막식은 3월 14일(화) 오후 3시에 중앙도서관 관정마루 앞에서 열리고, 전시는 2023년 3월 14일(화)부터 5월 19일(금)까지 진행된다.
- 이번 전시는 1996년 귀중도서전 개최 이후 27년 만에 열리는 중앙도서관 고문헌 특별 전시이자, 서울대학교 대표 작가의 문학 작품을 최초로 망라하는 전시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이번 특별전에서는 중앙도서관이 소장한 **한국 근대문헌(1910-1950년대 간행 문헌) 100여 점**이 처음으로 공개되고, **서울대 대표 작가 27명의 주요 작품 35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전시된다.
 - 이번에 처음 전시되는 한국 근대문헌에는 『정지용 시집』 초판본(1935)을 포함하여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1948) · 『귀족도』 초판본(1948) 등 **한국 근대 시집 희귀본 초판본 총 26점**, 1920-50년대 간행 소설 총 23점, 『백조』 창간호(1922) · 『시와 소설』 창간호(1936) 등 **한국 근대 문학잡지 창간호 20점**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서울대 대표 작가의 작품은 1940년대 학번인 전광용 작가의 『흑산도』, 1950년대 학번인 박완서 작가의 『나목』을 시작으로 하여 1980년대 학번인 심보선 시인의 『눈앞에 없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서울대인 문인 계보 속 소설가 15명과 시인 12명의 대표작**이 전시된다.
 - 전시 문헌과 관계된 도서의 최근 5년간 대출 순위를 조사해 상위 3순위 도서를 알려주고 바로 대출할 수 있게 하는 공간도 기획되어 있다.
 -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의 과거와 서울대학교의 과거를 함께 되돌아봄으로써, 격변하는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서울대인이 이룩한 눈부신 문학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고민하는 성찰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한국 최대의 근대 문헌 소장처로서 사회적 역할 강화와 근대기록문화유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근대문헌 공유 활용 거점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전시는 본 사업의 일환인 ‘특별전’으로 개최된다.
 - * 전시 문헌과 관계된 도서의 대출 순위 및 서지 정보는 빅데이터 기반 지식정보 플랫폼 LikeSNU를 통해 추출되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이용자 수와 대출 책 수의 증대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이번 전시는 그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가 사랑한 시와 소설, 서울대인의 문학

Poems and Novels We Love, The Literature of SNU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관 1층

서울대학교 신입생 비상전

23. 03. 14. — 23. 05. 19.

○ 전시 세션별 개요

세션	주요 내용
<p>메인세션 1. 서울대 도서관 소장서로 보는 한국 근대 시와 소설</p>	<p>1908년 신체시의 등장에서부터 1950년대 전후 문학까지 약 50여 년간 전개된 한국의 근대문학사를 중앙도서관 고문헌으로 재구해 보여준다. 초판본 시집 26점을 포함해 약 60여 점의 자료가 출품된다.</p>
<p>메인 세션 2. 서울대 도서관 소장서로 보는 한국 근대 문학잡지</p>	<p>1908년 잡지 『소년』의 발행 이후 근대식 종합지가 출현하고 문학잡지가 분화되며 신문사 발행 대중지가 나오게 되는 과정을 중앙도서관 고문헌으로 재구해 보여준다. 창간호 잡지 20점을 포함해 약 40여 점의 자료가 출품된다.</p>
<p>메인 세션 3. 서울대인의 문학 한국 현대 시와 소설</p>	<p>신입생이 알아두어야 할 서울대 문인의 계보와 그 작품을 소개한다. 이 계보는 12명의 시인(정한모, 황동규, 김지하, 마종기, 김광규, 정희성, 이성복, 황지우, 김정환, 최영미, 이수명, 심보선) 그리고 15명의 소설가(전광용, 박완서, 최일남, 최인훈, 손장순, 서정인, 이청준, 김승옥, 이인성, 김영현, 최수철, 주인석, 김소진, 권여선, 김탁환)로 구성되어 있다.</p>
<p>갤러리월 1. 저자 증정본 속 문인들의 손글씨</p>	<p>중앙도서관 가람문고와 백사문고는 저자증정본의 보고이다. 이들 문고에 소장된 저자증정본을 가려 뽑고 여기에 적혀 있는 문인들의 손글씨를 추려 캘리그라피 40여 점을 전시한다. 여기에는 정지용, 이광수, 신석초, 신석정, 박목월, 이청준, 김지하 등의 손글씨가 포함되어 있다.</p>
<p>갤러리월 2. 책 속의 작은 미술관</p>	<p>한국 근대 출판문화의 역사는 책이 문학과 미술의 결합체로 인식되는 과정이었다. 책 속의 시각문화 발달사를 보여주기 위해 1920년대 나혜석부터 1960년대 장욱진까지 9명의 화가가 그린 표지그림과 삽화를 액자화해서 전시한다.</p>
<p>갤러리월 3. 서울대학교 공동체 기념시</p>	<p>서울대학교 학생회관에 적힌 정희승 시인의 시 ‘여기 타오르는 빛의 성전이’는 1971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기공식에서 발표된 것이다. 이 작품을 비롯해서 서울대 공동체의 역사를 대표하는 기념시를 소개한다.</p>
<p>갤러리월 4. 신입생과 후배에게 주는 글</p>	<p>서울대학교 대학신문에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한국 현대 문단의 위대한 작가들이 후배를 위해 직접 조언을 해준 글들이 실려 있다. 신입생의 대학 생활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박완서, 이청준, 황동규 작가의 글을 선별해 소개한다.</p>

○ 전시 예정 주요 자료

이번 특별전은 한국의 근현대 문학사를 외부 대여 없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서로 재구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중앙도서관이 보유한 한국 근대 문학 희귀본 자료를 최초로 선보이는 한편 전광용, 박완서, 최인훈, 황동규, 이청준, 김승옥, 정희성, 황지우 등 서울대 대표 작가의 작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 보았다. 아울러 전시 문헌과 관계된 도서의 최근 5년간 대출 순위를 조사해 상위 3순위 도서를 알려주고 바로 대출할 수 있게 하는 공간도 마련하였다.

이번 전시에 처음 공개되는 한국 근대 문헌에는 『정지용시집』 초판본(1935)을 포함하여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1948) · 『귀족도』 초판본(1948) 등 한국 근대 시집 희귀본 초판본 총 26점, 이광수의 『이차돈의 사』 초판본(1937), 염상섭의 『삼대』 초판본(1947) 등 1930-50년대 간행 소설 총 23점, 『백조』 창간호(1922) · 『시와 소설』 창간호(1936) 등 한국 근대 문학잡지 창간호 20점이 포함되어 있다. 출판 도서를 통해 서울대 도서관 소장 근대 문학 자료가 그 양과 질의 측면에서 얼마나 탁월한가를 실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편 한국의 현대문학사는 서울대 출신 문인들의 다채로운 작품세계를 통해 재구해 보았다. 시 부문은 월북 문인의 해금(解禁)에 앞장 선 정한모 시인으로 시작해서 「즐거운 편지」의 황동규, 「오적」의 김지하, 「저문 강에 삼을 씻고」의 정희성, 「정든 유곽에서」의 이성복,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의 황지우, 「서른, 잔치는 끝났다」의 최영미 등 12명 시인의 대표 시집이 전시된다. 소설 부문은 백사문고의 기증자이자 「꺼삐딴 리」의 작가인 전광용 소설가에서 시작해서 「나무」의 박완서, 「광장」의 최인훈, 「당신들의 천국」의 이청준, 「무진기행」의 김승옥, 「낮선 시간 속으로」의 이인성, 「푸르른 틈새」의 권여선 등 15명 소설가의 대표작이 전시된다. 이와 같은 계보를 통해, 서울대인이 수놓은 시와 소설이 한국의 문학사를 얼마나 충만하게 만들었는가를 실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전시 문의: 고문헌기획연구(02-880-8071)

- * 붙임: 1. 대표 전시도서 목록
2. 대표 전시도서 사진
3. 서울대인의 문학 - 주요 작가

1. 대표 전시도서 목록

(1) 근대문헌

연번	서명	발간년도	내용
1	『청춘』	1914	1914년 최남선의 신문관에서 발행한 월간종합잡지이다. 『소년』 창간 이후 청년, 성인까지 독자대상을 확대한 잡지로 이광수, 현상윤 등 주요 작가의 작품을 수록하여 근대문학의 개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1918년 통권 15호로 종간되었다.
2	『시와 소설』	1936	순수문학을 지향한 ‘구인회’의 문예 동인지로, 1936년에 창간호를 내고 종간하였다. 창간호에 참여한 구인회의 초기 회원은 박팔양, 김기림, 정지용, 김상용, 백석, 이상, 이태준, 박태원, 김유정이다. 구인회의 글이 폭넓게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김기림의 평론 「걸작에 대하여」, 정지용 시 「유선애상」, 이상의 시 「가외가전」 국문 버전이 실려 있다. 구본웅이 편집과 발행을 맡았고 권두화를 그렸다. 권두에는 구인회 회원의 편집후기가 실려 있어 9명 작가 간의 세세한 차이와 개성을 읽을 수 있다.
3	『백조』	1922	박종화, 홍사용, 현진건, 이상화, 박영희 등이 동인으로 참여하여 1922년에 발행한 순수 문학 잡지이다. 1923년 통권 3호로 종간되었으나 근대 초기 낭만주의 경향의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 한국 근대문학 형성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	『가톨릭소년』	1936	천주교 만주연길교구에서 소년, 소녀들을 대상으로 창간한 아동 문학 잡지이다. 종교적 내용 외에 아동극, 동요, 과학, 소년문예 등의 내용을 망라해 수록하였다. 창간호의 표지는 장발이 그렸고, 정지용이 편집에 참여하였다. 1936년 5월호는 이상이 표지화를 그리고 동시를 투고하였다. 1936년 11월호에는 운동주의 동시가 실려 있다.
5	주요한 『아름다운 새벽』	1924	주요한의 첫 번째 시집 초판본이다. 작가가 상해로 망명하기 이전의 초기 시를 중심으로 총 7부 66편의 시가 실려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시이자 작가의 대표작인 「불놀이」가 수록되어 있다.
6	정지용 『정지용시집』	1935	1935년 시문학사에서 간행한 『정지용시집』 초판본이다. 정지용이 생전에 출간한 첫 시집인데, 「바다 1」 등 총 87편의 시와 함께, 정지용의 산문 2편과 편집자인 박용철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병기와 정지용은 휘문고보 교사로 함께 재직하면서 오랜 시간 문학적 교류를 나누었다. 『가람일기』에는 1935년 11월 22일에 『정지용시집』 출판을 기념해 축연을 벌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본 문헌은 정지용 시인이 가람 이병기 선생에게 직접 서명해 증정한 것이다.
7	서정주 『귀촉도』	1948	서정주의 두 번째 시집 초판본이다. 인간의 본능과 관능의 세계를 표현한 첫 시집 『화사집』과 달리 이 시집에서는 차분한 어조로 한국적 이상향과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저자가 서명하여 가람 이병기 선생에게 증정한 것이다.

연번	서명	발간년도	내용
8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948	윤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이다. 윤동주 서거 3주년을 기념하여 정음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편집에는 벗 정병욱, 강처중, 유명 등이 관여하였다. 「서시」, 「쉽게 씨워진 시」, 「병원」 등 총 31편의 시가 수록되어있고, 정지용의 서문과 유명한 추도시, 강처중의 발문이 수록되어있다. 본문과 목차 모두 완전한 가로쓰기로 간행되었다.
9	염상섭 『삼대』	1947~1948	염상섭의 대표작이자 우리 문학사에서 손꼽히는 사실주의 소설 『삼대』의 초판본이다. 1930년대 서울의 만석꾼 조씨 일가를 무대로 하여 조부와 아버지, 아들 삼대가 겪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1931년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작품을 상·하 두 권으로 묶어 출간한 것이다.
10	이광수 『이차돈의 사』	1937	1935년 9월부터 1936년 4월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역사소설로서, 1937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신라 최초 불교 순교자인 이차돈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종교적 각성을 통해 중생을 구원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저자 이광수가 조선일보 방응모 사장에게 증정한 것이다.

(2) 서울대인의 문학

연번	서명	발간년도	내용
1	『산문시대』	1962~1964	1962년에 창간된 산문 동인지로 1964년까지 총 다섯 호가 발간되었다. 지방 출신, 외국문학 전공, 서울대 문리대생이라는 배경을 공유하는 청년들이 결성한 동인으로 김현, 김승옥, 최하림, 김치수, 서정인, 염무웅 등이 참여하였다. 훗날 『창작과비평』과 『문학과지성』 형성의 주요 동인이 되었다.
2	정한모 47학번 『카오스의 사족』	1958	정한모의 첫 번째 시집 초판본이다. 작가는 전쟁 직후 참혹하고 무질서한 상황을 카오스로 규정하였는데, 이 작품집은 전쟁의 참혹함과 파괴성을 체험한 시인의 경험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6편이 수록되어 있다. 가람문고에는 저자증정본이 소장되어 있다.
3	전광용 47학번 『흑산도』	1959	서울대 대표 작가 중 한 명인 전광용의 첫 번째 소설집이다. 「흑산도」 등 14개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흑산도」는 195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저자의 데뷔작이자 대표작에 해당한다. 저자가 가람 이병기 선생에게 증정한 것이다.
4	박완서 50학번 『나목』	1985	박완서의 등단작으로 1970년 『여성동아』 여류 장편소설 공모 당선작이다. 1976년 열화당에서 처음 발간되었으며, 소개하는 도서는 1985년 중앙일보사 출판본이다. 박수근 화가를 소재로 한 소설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분단 문제, 물질 중심주의, 여성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룬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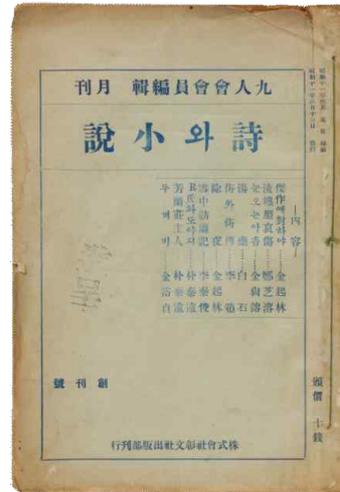
연번	서명	발간년도	내용
5	황동규 57학번 『어떤 개인 날』	1961	황동규의 첫 번째 시집 초판본이다.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작 『소속』을 비롯하여 표제작인 「어떤 개인 날」과 작가의 등단작인 「시월」, 「즐거운 편지」 등 총 23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백사문고에는 저자증정본이 소장되어 있다.
6	김지하 59학번 『항토』	1970	김지하의 첫 번째 시집 초판본이다. 작가의 등단작인 「항톳길」 등 총 3부 32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책의 말미에 문학평론가 염무웅, 시인 정현종, 소설가 김승옥의 발문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백사문고에는 저자증정본이 소장되어 있다.
7	이청준 60학번 『당신들의 천국』	1976	이청준의 장편소설로 1974년부터 2년간 『신동아』에 연재되었고, 1976년 문학과지성사에서 초간되었다. 소록도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1970년대 한국 정치 현실을 암유한 명작이다. 백사문고에는 저자증정본이 소장되어 있다.
8	김승옥 60학번 『서울, 1964년 겨울』	1966	김승옥의 소설집으로 총 11편이 수록되어 있다. 표제작 「서울, 1964년 겨울」은 1956년 6월 『사상계』에 발표되어 1966년 창우사에서 초간되었으며, 1965년 제10회 동인문학상 수상작이다. 백사문고에는 저자 증정 초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9	정희성 64학번 『답청』	1974	정희성의 첫 번째 시집이다. 가장 마지막에 실린 작품은 작가의 등단작인 「변신」으로 1970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작이다. 심악문고와 일석문고에 저자증정본이 소장되어 있다.

2. 대표 전시도서 사진

(1) 근대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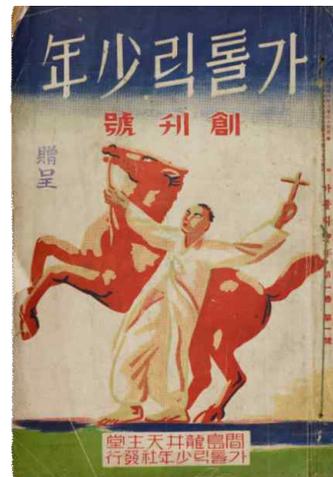
1. 『청춘』 창간호, 1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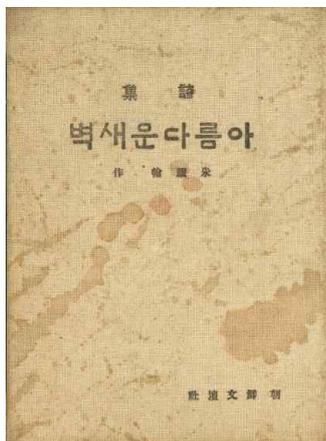
2. 『시와 소설』 창간호,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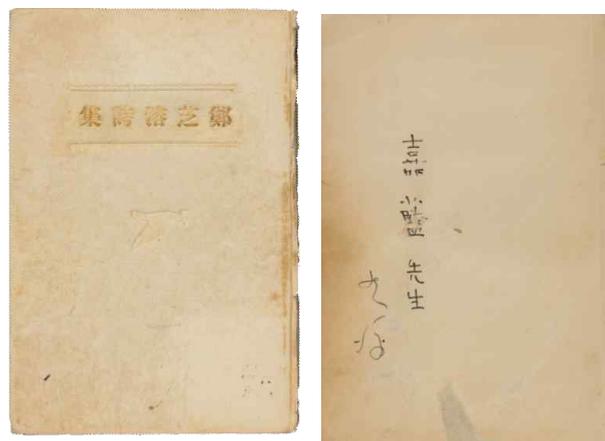
3. 『백조』 창간호, 1922



4. 『가톨릭소년』 창간호,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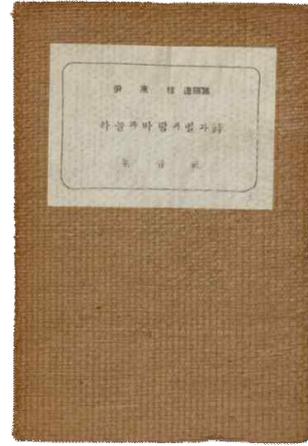
5. 주요한, 『아름다운 새벽』, 1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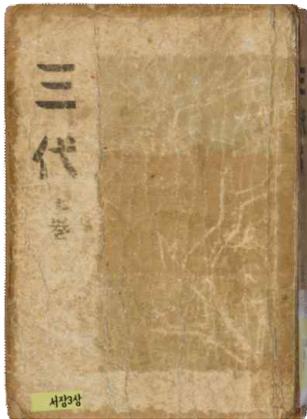
6. 정지용, 『정지용시집』, 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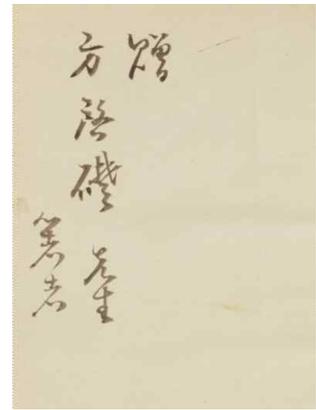
7. 서정주, 『귀축도』, 1948



8.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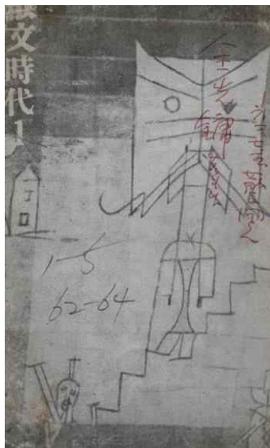


9. 염상섭, 『삼대』, 1947-1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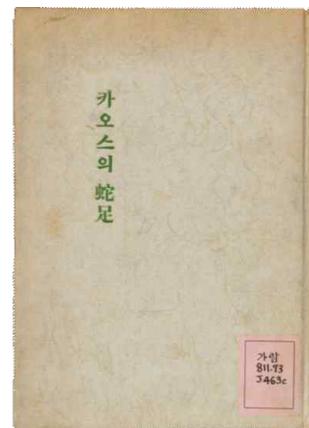


10. 이광수, 『이차돈의 사』, 1937

(2) 서울대인의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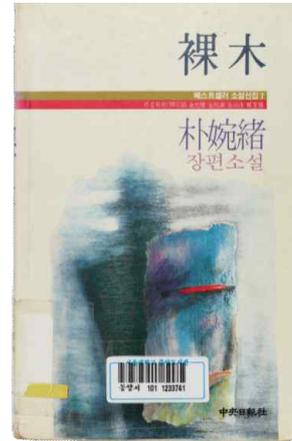
1. 『산문시대』, 1962~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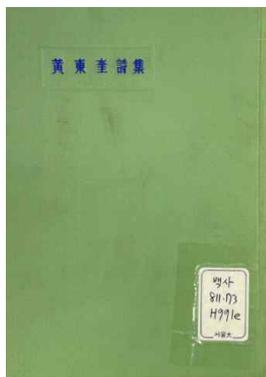
2. 정한모, 『카오스의 사족』, 1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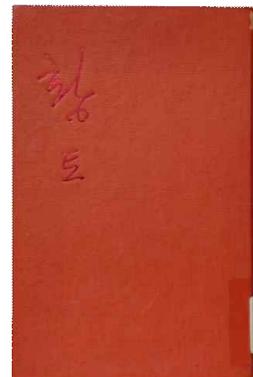
3. 전광용, 『흑산도』, 1959



4. 박완서, 『나무』,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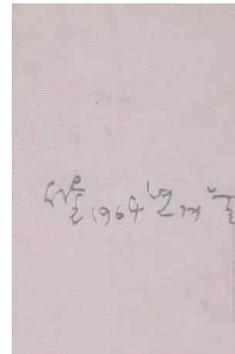
5. 황동규, 『어떤 개인 날』, 1961



6. 김지하, 『황토』, 1970



7.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1976



8.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1966



9. 정희성, 『답청』, 1974

3. 서울대인의 문학 - 주요 작가

시대구분

1940년대 학번

1945 8.15 광복
1946 서울대학교 개교

시인



정한모(1923-1991)

국어국문학과 47학번

등단작 귀향시편
대표작 카오스의 사족 外

소설가



전광용(1919-1988)

국어국문학과 47학번

등단작 흑산도
대표작 꺼삐딴 리 外

1950년대 학번

1950 한국전쟁



박완서(1931-2011)

국어국문학과 50학번

등단작 나목
대표작 목마른 계절 外



최일남(1932-)

국어국문학과 52학번

등단작 파양
대표작 흐르는 북 外



최인훈(1936-2018)

법학대학 52학번

등단작 GREY 구락부 전말기
대표작 광장 外



황동규(1938-)

영어영문학과 57학번

등단작 즐거운 편지
대표작 어떤 개인 날 外



손장순(1935-2014)

불어불문학과 54학번

등단작 입상, 전신 등
대표작 한국인 外



김지하(1941-2022)

미학과 59학번

등단작 황톳길
대표작 타는 목마름으로 外



서정인(1936-)

영어영문학과 55학번

등단작 후송
대표작 강 外

시대구분

1960년대 학번

1960 4.19 혁명

시인



마종기(1939-)

외과대학원 64년 입학

등단작 해부학 교실
대표작 조용한 개선 외



김광규(1941-)

독어독문학과 60학번

등단작 유무, 영산
대표작 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 외



정희성(1945-)

국어국문학과 64학번

등단작 변신
대표작 답청 외

소설가



이청준(1939-2008)

독어독문학과 60학번

등단작 퇴원
대표작 병신과 머저리 외



김승욱(1941-)

불어불문학과 60학번

등단작 생명연습
대표작 서울, 1964년 겨울 외

1970년대 학번

1970 10월 유신
1971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기공식



이성복 (1952-)

불어불문학과 71학번

등단작 정든 유곽에서
대표작 뒹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 외



이인성(1953-)

불어불문학과 73학번

등단작 낮선 시간 속으로
대표작 마지막 연애의 상상 외



황지우(1952-)

미학과 72학번

등단작 연혁
대표작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외



김영현(1955-)

철학과 74학번

등단작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대표작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외



김정환(1954-)

영어영문학과 72학번

등단작 마포, 강변동네에서
대표작 지을 수 없는 노래 외



최수철(1958-)

불어불문학과 77학번

등단작 맹점
대표작 얼음의 도가니 외

시대구분

1980년대 학번

1980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0 6.10 민주항쟁

시인



최영미(1961-)

서양사학과 80학번

등단작 서른, 잔치는 끝났다
대표작 돼지들에게 外



이수명(1965-)

국어국문학과 85학번

등단작 우리는 이제 충분히
대표작 물류창고 外



심보선(1970-)

사회학과 88학번

등단작: 풍경
대표작: 슬픔이 없는 십오 초 外

소설가



주인석(1963-2022)

국어국문학과 82학번

등단작 그날 그는
대표작 검은 상처의 블루스 外



김소진(1963-1997)

영어영문학과 82학번

등단작 쥐잡기
대표작 열린 사회와 그 적들 外



권여선(1965-)

국어국문학과 83학번

등단작 푸르른 틈새
대표작 사랑을 믿다 外



김탁환(1968-)

국어국문학과 87학번

등단작 열 두 마리 고래의
사랑이야기
대표작 불멸 外